

# ‘예대마진’ 안주하다 핀테크 失機... ‘금융의 삼성’ 멀었다

우물안 **국내銀** **글로벌** **외국銀** ① 수익성 분석

### 금융지주 수익 50~80% 은행서 벌어 “전통금융 성장 한계” 시중은행 NIM 상승세... 업무 글로벌화·투자도 강화해야

“예 삼성전자 같은 금융사는 없는가(?)”

우리 금융산업의 낙후한 현실을 꼬집는 질문이다. 이자 장사로 버티며 ‘우물안 개구리’로 안주한 결과다. 금융지주 수익의 50~80%는 은행이 차지할 정도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전통적인 금융산업은 성장한계에 부딪혔고, 빠르게 변하는 핀테크 산업을 따라잡지 못하는 은행은 현재 지위가 강등되거나 자금중개 기능조차 상실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실제 세계경제포럼(WEF)이 매년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지난해 우리나라 금융시장 성숙도는 74위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 노사간 협력(130위), 대출용 이성(90위), 은행건전성(91위) 등에서 나쁜 평가를 받은 탓이다. 시장 규모는 13위로 평가됐다.

수익성만 놓고 볼 때 우리나라 시중은행의 수익성은 글로벌 은행에 비해 결코 뒤지지 않았다. 7월 31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한국 대표은행의 2016년과 2017년 순이익 증가율은 각각 24.5%, 30.2%였다. 이는 미국(-1.3%·-26.9%), 일본(-1.4%·2.9%), 영국(-34.5%·66.9%), 유럽(52.1%·-0.4%), 중국(-0.1%·4.0%)

등과 차별화된다. 국내 기준금리 인상 수혜에 따른 순이자마진(NIM) 상승, 상대적으로 높은 대출성장, 이에 따른 높은 이자이익증가율 등에 기인한다. 대손비용률도 글로벌 은행 대비 낮다.

#### ◆ 순이자마진 글로벌 은행과 차이

순이자마진(NIM)은 글로벌 은행과 차이를 보인다. 블룸버그와 유진투자증권에 따르면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 우리은행 NIM은 1.7~2.2%(이하 2017년 GAAP 연결기준 연간 NIM 적용)가량이다. 글로벌 은행에 비해 높은 수준은 아니다.

미국 주요은행인 제이피모간체이스(J.P. Morgan Chase·JPM US), 뱅크오브아메리카(Bank of America·BAC US), 웰스파고(Wells Fargo·WFC US), 시티그룹(CITI Group·C US)의 NIM은 2.3~2.9% 가량이다.

일본 주요은행인 미쓰비시UFJ파이낸셜그룹(Mitsubishi UFJ Financial Group·8306 JP), 스미토모미쓰이파이낸셜그룹(Sumitomo Mitsui Financial Group·8316JP), 미즈호파이낸셜그룹(Mizuho Financial Group·8411 JP)의 NIM은 0.6~1.1%이다.

영국 주요은행인 HSBC(HSBC Holdings PLC·HSBALN), 로이즈뱅크(LLOYDS Banking Group·LLOYLN), 바클레이즈(BARCLAYS PLC·BARCLN)의 NIM은 1.2~1.6%, 프랑스 주요은행인 BNP파리바(BNP Paribas SA·BNP FP) 및 소시에테제네랄(Societe Generale SA·GLE FP) NIM은 각각 1.6% 및 1.0%이다.

독일 주요은행인 도이치뱅크(Deutsche Bank AG·DBK GR) 및 코메르츠뱅크(Commerzbank Aktiengesellschaft·CBK GR) NIM은 각각 1.5% 및 1.1%, 기타 스페인 주요은행인 방코산탄데르(Banco Santander SA·SAN SM) NIM은 3.1%, 스위스 주요은행인 크레디트스위스(Credit Suisse Group AG·CSGN SW) NIM은 1.2% 수준이다.

중국 주요은행인 공상은행(Industrial and Commercial Bank of China Ltd), 건설은행(China Construction Bank Corporation), 중국은행(Bank of China Ltd), 교통은행(Bank of Communications CO. Ltd) NIM은 1.7~2.5%다.

#### ◆ 국내 은행 기준금리 인상 수혜로 NIM 상승 차별화

한국 시중은행의 수익성은 더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기준금리 측면에서 시중은행의 NIM이 상승 추세다. 지난해 11월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2018년 NIM 상승 반영과 2018년에 1~2차례 금리인상이 예상되

고 있어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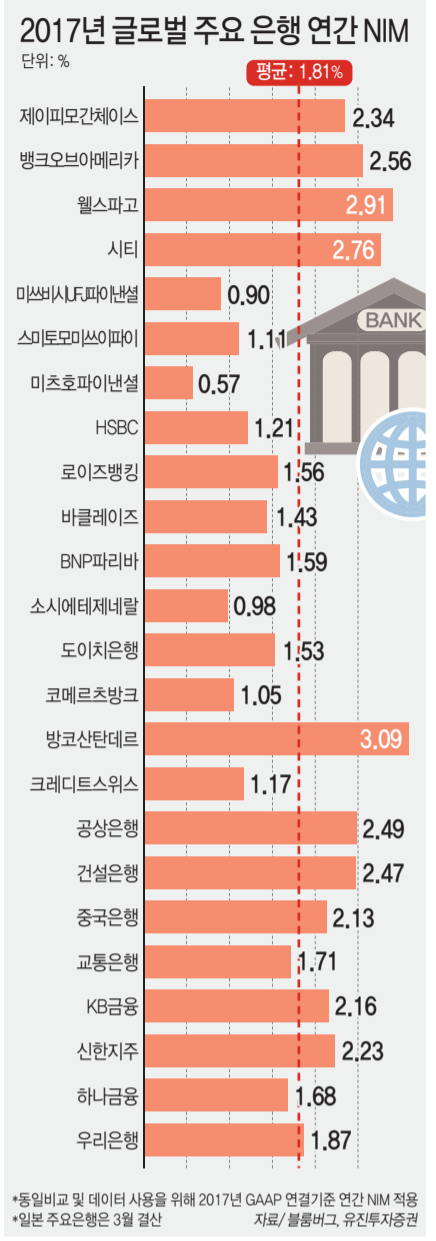
NIM에 영향을 미치는 예대율(예금/대출)에서도 글로벌 은행 수준을 웃돈다. 2017년 글로벌 주요 은행의 평균 예대율은 84.9%로 하락 추세다. 국가별 주요 대표은행 기준으로는 미국 70.0%, 일본 59.3%, 유럽 92.7%로 평균 예대율 하락은 지속되고 있는 반면 중국 78.1% 및 한국 107.2%로 소폭 상승했다.

대출채권 비중도 수익성에 호재다. 지난해 말 기준 평균 대출채권 비중(총대출채권/자산총액)은 68.2%이다. 같은 시기 글로벌 주요 대표은행은 47.9%였다. 국가별로는 미국 41.7%, 일본 37.9%, 유럽 42.0%, 중국 54.5% 등이었다. 이는 국내 은행이 글로벌 주요 은행 대비 해외 및 은행 외부의 사업다각화가 부족하다는 의미지만 금리상승의 수혜가 가장 크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대출은 금리가 높은 운용자산 중 하나로 조달금리 리프라이징(Repricing·가격 재산정) 효과로 금리상승에 긍정적 영향을 받는다.

전문가들은 예대마진에 의존하는 한계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유진투자증권 김민 연구원은 “해외 주요 대표은행의 업무영역이 글로벌화 됐다는 점과 대출 중심의 상업은행 보다는 투자은행 성격도 강하다. 국내 주요은행과 달리 기준금리로 인한 NIM 영향과 이에 따른 순이익 기여도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문호 기자 kmh@metroseoul.co.kr



마포구가 마포매경타운과 연계한 ‘일자리 매칭데이’가 열린 12일 오후 서울 마포구청 어울림마당에서 구직자들이 현장에 설치된 채용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시스

## 하반기 5개 은행 2210명 ‘채용 큰장’

### 필기전형 NCS 직업능력평가 도입

10여년 만의 필기고시 부활과 역대급 채용이 예고된 하반기 시중은행들의 채용이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본격 시작됐다. 구직자들에게 이들 은행 채용 트렌드에도 관심이 쏠린다.

31일 인크루트에 따르면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N

H농협은행 등 5개 시중은행의 하반기 채용인원은 2210명에 달한다. 상반기와 합하면 올해 이들 5개 은행 채용 규모는 3100명으로 역대급으로 많다. 채용잡음을 줄이고 채용 공정성을 준수하기 위해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채용규모를 상향 조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은행은 지난 30일 ‘2018 개인금융 서비스직군 신입행원’ 모집부문에 대해

서류 접수를 마감하고 내달 오는 8월 11일 필기전형을 앞두고 있다.

우리은행은 올 상반기 채용 시 필기전형에서 경제·금융·일반상식과 적성검사를 실시했다. 하반기 필기전형에서는 NCS 직업기초능력평가를 첫 도입해 기존 적성검사를 대체한다. 일반상식과 경제 지식 문제는 유지된다.

/한용수 기자 hys@

# 제22회 무안 연꽃축제

사랑, 소망 그리고 인권

2018. 8.9(목) ~ 8.12(일) / 4일간

전남 무안군 일로읍 회산백련지 일원

무안군

### 주요행사

- i-클존(얼음나라)
- 연지방 소망등 달기
- 백련 가래떡 나눔잔치
- 연빛달빛 사랑의 퍼레이드
- 연꽃방죽 AR 보물찾기
- 발이퐁퐁 연꽃얼음물길